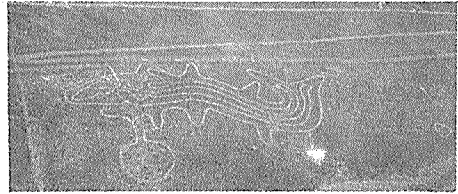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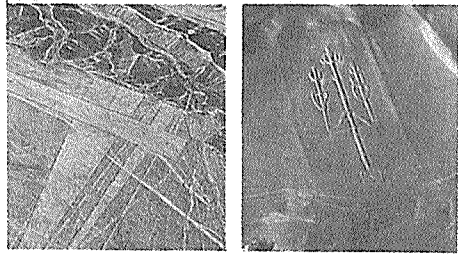


崔 昌 奎



不可思議의 巨大繪画

外界人の 滑走路라고도 하는 抽象画  
浮袋를 갖인 魚族画  
岩壁의 樹木画

1 | 2 |  
3

三회에 걸친 今般紀行文으로 大略의인 것을 보고 느낀 대로 다 썼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미처 記憶을 되살리 지 못했다든가 流落된것이 있어서 꼭 이런 것은 此際에 會員諸位에게 이야기하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믿고 續紀行이란 題目으로 쓰는 것이다.

“Calapacos” 群 島

Mexico와 Corombia의 西海岸 即 太平洋쪽에 飛行機로 三時間, 汽船으로는 三日이나 걸리는 距離에 Calapacos란 群島가 있다. 이곳은 事實은 旅行을 떠나기 前부터 可及의이면 꼭가보야겠다고 計劃에 짜 넣은 곳이였으나 우리들의 旅程이 너무나 짧고 時間과 經費問題로 아쉬웁게도 못가본곳이 되고 말았다.

이 群島는 現在도 世界各國의 動物學者나 遺傳學者라면 반드시 가보야하는 곳으로 저 有名한 進化論의 發說者인 Charles-Darwin이 長期間 이곳에 머무르면서 觀察과 調査 및 研究한 곳이고 이곳에서의 研究結果가 그 有名한 動物의 進化論인 것이다. 이 群島는 옛부터 無人島로서 各種의 動植物들이 아무런 威脅도 받지 않고 生殖 또는 成長해온 地球上에 唯一한 平和境이여서 動物들의 飼料가 豊富해서 肉體를 그리움지가지안어도 平和롭게 먹고 살고 繁殖하고 즐길수 있었기 때문에 動物들의 體格의 Sign나 어떤 部分이 退化하거나 進化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動物의 性質이나 動作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數만은 鳥類도 이 群島에 棲息하고 있으나, 鳥類라면은 依例히 날어야 할터인데 이곳 鳥類들은 長久한 時間동안에 外敵이 없어서 날으면서 먹이를 찾거나 他動物을 攻擊할 必要가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群島속의 鳥類는 거의가 날개가

退化되어서 적어져서 不具에 가깝고 오직 걸어 다니기 만하고 전혀 날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動物學者나 遺傳學者들이 이 群島에와서 그런 것들을 觀察하고 研究하는 것이다. 이런 特異한 곳은 꼭보고 올려고 旅行計劃에 짜 넣었지만 갈 수 없었다는 것은 歸國後에도 두고두고 哀惜하기만 했다.

“NAZUCA”의 巨大繪画

Peru의 Lima에서 五人乘輕飛行機를 豫約까지해놓 았다가도 못가본 아쉬운 곳이다. 이곳은 Peru의 太平洋岸쪽의 若干의 沙漠이 있는 곳으로 首都Lima에서 輕飛行機로 三時間程度의 距離에 있는 거의 人間이 살고 있지 않는 壁地인데 沙漠위에 또는 廣野에 或은 海岸의 岩壁에 像想도 못할 巨大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때 까지 그것이 그림인줄 몰랐는데 偶然히 高度의 飛行에서 發見되어 世界의 話題가 된곳이다.

이 그림들은 抽象 画같은 것도 있고, 물고기, 나무의 그림인데 언제 누가 무슨 目的으로 그려놓은것인지 記錄에도 없고 알길이 없어 더욱 不可思議한 것이다. 이 그림들은 곁에가보면 너무도 커서 그림임은 認知할 수가 없다.

그 그림의 크기는 몇 km나 되니 相當한 高空에서 보아야 비로서 그림임을 알수가 있다. 이 그림에 對해서는 各

說이 많다. 卽 抽象畵같은 것은 外界人들의 飛行접시(U. F. O)의 滑走路라고도 하고 地球人이 그린것이 아니고 外界人들이 地球에 왔다가 標識으로 그려 놓고 간것이다 라는 等等의 說이 許多하다. 그 理由로서는 옛날에는 發見 못했는데 近世에 와서 發見되었다는 點, 地球人이 그런 그림을 그릴 必要도 理由도 없거니와 그릴 作業이 不可能하다는 點等이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것이 地球上에서 近者에와서 飛行접시(U. F. O)가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地方이라는 點들을 듣고 있다. 何如間 神奇하고 不思議한 그림임엔 틀림없다. 우린 이 그림을 볼려고 無理해서 高額의 專賞予約까지하고 決死的인 決意로 꼭 가볼려고 했지만, 不運하게도 氣象關係로 輕飛行離陸이 不許되어 못가고 말았다. 後에 들은바에 依하면 이 旅行은 50%의 安全率과 50%의 事故率이라고 들었다. 그 理由는 飛行機가 적은 輕飛行機(푸로펠라식)라는 點과 이 地點의 氣象이 아주 不順하다는것과 沙漠과 海岸과 岩壁사이를 慾心내어 가까히가 볼려는 손님이나 操縦士들의 冒険이 結局은 50%의 事故率을 낸다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곳을 우리는 겁도 없이 決行하려고 했든것이나, 不幸中多幸인지 氣象條件으로 우린 목숨을 잃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 “BLACK HOLE”

原來 中南美諸國은 Mystery가 많은 나라들이다. Cuba의 앞 海域에 Black Hole란게 있다고 한다. 이 Black hole이란것을 哲學이나 物理學에서 近者에 대두된 理論으로서 各稱 그대로 “검은 구멍”이란 뜻이다. 그 구멍이 보인다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海域 어떤地點에 力點의 中心集點같은것이 있어 物體가 이곳에 近接하면 完全히 蒸發되어 殘骸도없이 無로 돌아간다는點에서 hole이란 名稱이 붙었고 아무리 巨大한 物體라도 삼켜버린다고 한다. Cuba의 南쪽 Bermuda의 海域에 바로 그 Black hole이 있다고 하는것은 이때까지 이 海域에서 數만은 潜水艦 汽船, 航空機가 蒸發되었기때문에이다. 이 Hole은 國籍을 가리지 않고 接近하는 모든 物體를 蒸發시키므로써 어떤 國家의 秘密武器가아니야는 疑問같은것도없고, 오히려 이로 因해 物理學者들은 이와 反對로 white Hole이란게 있어 巨大한 物體라도 無에서 내뱉는다고하는 새로운 學說도 나오고 있다. 何如間에 눈에 보이지 않는 Black Hole이나, white Hole의 說이 真正이라면 宇宙物理學에 大革新이겠고 이때까지의 物質生成의 學說이 完全히 廢棄될것이고 將次의 宇宙科學에 一大革新이 일어날 것은 틀림없는일이 될것이다.

### “CHICHICACA湖水”

3회에 걸친 紀行文속에서도 言及했지만, 中南美는 珍奇한것과 不可思議한것이 많은 나라들이다. 또 Maya나

Inca 遺蹟에서만은 湖水나 못(池)에 對한 이야기를 했지만 chi re와 Boribia의 國境에 chicaoaca湖水가 있는데, Peru에서 旅程은 變更해서 chire은 안가고 直接 Argentina로 갔기 때문에 이 湖水는 볼수 없었던 것은 자못아쉬웠다. 이 湖水는 相當히 큰 湖水인데 어떻게 巨大한 Andes山脈의 中間頂上에 이런 큰 湖水가 생기었는지도 異常한 일이지만 옛날의 噴火口(Andes山脈은 火山脈이고 Peru는 現在도 地震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일지 모르지만 湖水岸에서부터 精巧한 石造階段이 湖心으로 이어져 있어 古代엔 이 湖心水中에도 이 階段을 통해서 人間이 往來했다는 것인지 또는 水中에도 建築物이 있었다는것인지 또는 宗教的인 어떤 裝置가 水中에 있었는지 何如間에 階段이 湖底까지 있다는것은 考古學者들은 골치 아프게 하고 있다. 또 하나 珍奇한 것은 이 湖上에 村落이 있는데 浮村(Floating-Billage)이라고 불은다, 그것은 周圍湖岸에서 相當距離까지 갈때가 茂盛한데 이 갈때가 枯死해서 그 위에 또 갈때가 나고 이런일이 몇번 反復되다보니 그 갈때가 쌓인 것이 2m두께나 되니 그 위에 人間들이 또 갈대로 집을 짓고 흙을 옮겨서 菜蔬을 栽培하고 養鷄養豚까지 하고 있으니 浮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村落은 흙위가 아닌 물 위에 갈대섬에서 살고 있는셈이 되어있다. 奇異하게도 이 湖水엔 물고기類가 전혀 한마리도 없다는 것이고 生物이라곤 單一種의 두꺼비가 있을뿐이란다. 近者 美國의 探險家들이 極小型潜水艦을 特別히만들어서 이 湖水을 探索한바에 依하면 怪異한 模樣의 두꺼비가 1M<sup>2</sup>에 네마리 꼴로 살고있다니 이 湖水엔 約 80萬마리의 두꺼비만이 살고 있다는 말이되겠다. 魚族이 하나도 없다 해서 死湖(Dead-lake)란 別名으로 불리우고도 있다. 美國 親舊들이 이 湖水을 探索한 것은 多分히 장사속으로 餘他的 中南美地域의 大少의 湖水나 못에는 數만은 寶, 貨가 있었음으로보아 이 湖水에도 반드시 있을것으로 믿고 莫大한 投資을 해서 探索을 했으나 寶物조각하나도 못찾아서 失望했다는 이야기고보면, 모든 湖水나 못에는 반드시 寶物이 많았는데 何必이 chichicaca湖에 만은 室物이 없는가에 對해서는 死湖라는 口傳名으로 보아도 凶湖임에 틀림없고 무슨 宗教的 뜻이 있는 湖水가 아니었는가 하는 說이 圧倒的으로 커지고 있다.

### “MACHU-PICHU 憲章”

우린 中南美에 對해서 너무도 아는것이 없었다는 것은 거듭말한바이지만, 建築에 關한 國際情報도 아주 감감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해야만 하겠다. 卽1777년에 peru의 建築家들이 主動이 되어서 C. I. A. M의 ATHENS憲章은 保完改正해서 새로운 現代建築의 憲章을 制定하고자 나서 뜻있는(同調하는) 만은 世界建築家들이 Machu-pichu에 모여서 會議를 가졌다는 일이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C. I. A. M은 스위스의 Rasara  
 城寨에서 始作되어 그리스 大會때에 그리스 文明의 遺跡  
 인 ATHENS에서 現代 建築에 關한 憲章을 制定했고 近  
 代 建築五大原則을 發表한 바 있다. 이 憲章이나 五大原  
 則은 現代 建築의 進路方向을 提示했고 또 莫大한 貢獻과  
 影響력을 發揮한 것은 모두가 認定하고 있는 바이지만 近  
 者에 와서 國際主義 建築이나 世界狀況의 變化로 ATHENS  
 憲章을 保光改正해야 한다는 것에 對해서는 世界 建築界  
 의 第三世代들에게는 前부터 提唱되어 오든 中이 있는데  
 1977년에 INCA 文明의 遺蹟地인 MACHU- PICHU 에서  
 活力있는 三世代들이 이 作業은 始作했다는 것은 偶然인  
 지는 몰라도 그리스 文明과 INCA 文明의 遺蹟地에서 라는  
 點에 有意味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所謂 MACHU- PICHU  
 憲章의 起草內容은 確實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整理되어  
 發表된다면 ATHENS 憲章에 못지않게 將次的 國際 建築  
 에 큰 影響력을 줄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內  
 容을 速히 U. I. A 를 通해 알아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  
 다.

#### 中南美의 香料

世界的으로 香料가 가장 많고 質이 좋은 것이 生産되는  
 地域은 熱帶나 亞熱帶인 것 같다. (coffee, 후추, 胡椒, 담  
 배 등이 가장 質이 良好하기로는 JAVA를 꼽는다.

그러나 JAVA는 量이 적어서 別로이다. 튀니 튀니 해도  
 中南美의 香料가 世界의 大部分의 市場을 占領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BRASIL의 Coffee나 Mexico의 胡椒等  
 은 잘 알려지고 있는 바이다. 담배는 COROMBUS 가  
 CUBA의 土人들이 어떤 풀잎을 씹고 있는 것을보고서 世  
 上に 처음으로 傳播되었다고 한다. 現在 美國이나 CUBA  
 나 中南美에서는 低所得層은 이 씹는 담배가 盛行되고 있  
 다 勿論 우리나라의 忠北의 黃色煙草도 質에 있어서 뒤떨  
 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Mexico의 胡椒는 작으면서도 맵  
 다는 點에서 이름이 있고 또 量의으로도 多量이 生産되고  
 있고 BRASIL의 Coffee에 이르러서는 世界市場의 60%  
 以上을 獨占하다 싶고 있다. 現在 BRASIL의 財閥  
 이라면 거의가 다 Coffee 農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고 한다. 이렇듯 多量의 Coffee가 生産되니 中南美 各國  
 間에서는 Coffee 協會란게 있어서 世界의 Coffee 市場의  
 分配와 價格調整 등을 協意, 守護하고 있는데 勿論 宣傳  
 도 해야 하므로 各空港 LOBBY나 公共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Coffee Assosiation이란 看板을 걸고  
 無料로 試飲 시키고 있다. 우리一行도 各國의 空港 에서  
 이런 無料 Coffee의 接待를 곳곳에서 받은 바 있다. 그 無  
 料奉仕하는 Coffee도 濃波나 調製方法, 量, 容器에 이르  
 기 까지 各樣各색으로 多樣한 것을 보니 競争도 大端한  
 摸樣이고 이것도 石油처럼 國際的인 武器化나 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이것은 卉談이 아니고 世界

의 每年 Coffee消費量이 級數的으로 上昇한다는 點과 近  
 者 우리나라의 Coffee輸入量이 倍數的으로 불어나고 있다  
 는 事實에서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다.

#### “RIO의 CARNIVAL”

紀行文中 Blasil 篇에서 Rio의 謝肉祭에 對해 若干  
 言及을 했으나 歸國後 韓國에서 Rio의 謝肉祭에 對해서  
 는 記事가 있어 우리 一行이 Rio에 滯在時에 맛보지 못  
 했지만 들은바를 이야기 할까 한다. 모름지기 世界의 어느  
 民族이든 Stress 解消라고나 할까 慰樂의 行事는 規模  
 나 時期나 方法은 달라도 다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境遇 나 어렸을 때 記憶으로도 天祭祀나 端午節이나 正  
 月 보름, 秋夕 등은 우리나라의 謝肉祭라고 보는 것이다.  
 시골에서는 그네, 씨름, 줄다리기 때로는 男寺堂패를 불  
 러 오고, 廣大노름 등을 했다. 勿論이에 따르는 飲食들  
 도 많이 마련했고 主人도 머슴도 그날만은 잘 어울려 놀  
 았다. 그러나 Rio의 謝肉祭는 世界의 謝肉祭中的 巨擘  
 이다. 干先期間이 15日間이나 된다는 點과 演芸人이 아닌  
 市民의 大部分이 다 參加한다는 點과 豪華, 華麗 함과 狂  
 的이라는 點에서 外國人들도 일부러 이때에 Rio로 모여  
 와서 같이 어울린다는 點이라든지 氣候關係도 있겠지만  
 거의가 半裸로 原始動物인 樣狂亂을 부린다는 點이고 이  
 런 混亂이 15日間이나 繼續되니 生産의 中斷이나 公務의  
 休止나 消費되는 物量의 莫大함과 數百에 이르는 事故나  
 死亡者가 發生한다는 것은 우리의 常識으로는 理解할 수  
 가 없을 程度이다. 그 有名한 原始性交의 模倣動作 같은  
 삼바춤과 템포가 빠른 狂亂의 音樂과 無作定의 飲酒, 開放  
 된 sex 이 期間만은 完全히 秩序는 무너지고 無法의 地  
 境이 된다는 것이다. 各 部落이나 거리(區)別로 보스가  
 있어 그의 指揮아래 對抗戰式으로 이뤄지고 그 行列은 거  
 리에 넘치고 晝夜을 가리지 않는다니 可히 像想하기도 힘  
 든 地境이다. 日本의 盆踊(본 오どり)나 西獨의 麥酒 ca  
 rnaval 雪上에 벌어지는 ski carnival 北歐各國의  
 馴鹿群과 어울리는 sex의 carnival 中國의 廟祭日의  
 行事나 에스키모인들의 氷上祝祭等 各國各樣의 祝祭나  
 Stress 解消내지는 慰樂을 위한 各種行事는 許多하나  
 그래도 RIO의 CARNIVAL은 世界에서 가장 珍奇하고  
 狂的이라는데서 名物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 “學生作品展”

U. I. A. 大會에 例事로서 各國의 學生作品展이 열리게 되  
 여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數次에 걸쳐 이 學生作品展에 應  
 募했었다. Madrid 大會때에도 서울大 建築科 學生 2名이  
 合作出品해서 入選한적이 있고, 今般 Mexico 大會에도  
 서울대서 出品했었다. 거듭 말하지만 家協會에서는 늘 事  
 前에 各大學에 通知하고 出品을 勸告해 왔으나 率直히 말  
 해서 學校當局이 아주 無關心 했고 家協會員으로 있는 學

校教授들도 그리 積極의 못되어인지 또는 學生들의 劣等意識에서 인지는 몰라도 出品狀況이 아주 低調했던 것은 事實이나 過去 Bvenosares 大會時에는 北韓이 出品한 것을 우리 代表들이 보고 온 적이 있었다. 말에 依하면(約十年前)그 當時 우리 工高學生展水準 것이 었다고 했다.

나의 經驗으로서 Madrid 大會時의 우리 作品은 優秀했고 入選되어서 展示까지 되어 있어서 나는 너무도 기뻐서 그 作品앞에서 写真도 찍었다. 그 大會에 入賞作은 카이로 大學의 出品작이었고 그 連絡을 받은 카이로 大學生 男女10余名이 Madrid 에 몰려 와서 법석을 면 것이 記憶에 남는다. 大會開催國인 spain 의 大學生들이 落選되어서 소란을 피운 것도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大會에 出發하기 前에 出品한 서울大의 李君이 事務室에 찾아와서 美國에 있는 親旧에게서 連絡을 받았다고 하면서 自己作品이 入賞되었다고 했다. 우리도 기뻐했고 Mexico에 到着하자마자 곧 學生作品展示場에 보았더니, 아무리 찾아도 李君의 것이 없다. 나는 하도 異常해서 大會의 secretery Genelal Room 에 가서 물었더니 曰, “아 그 作品은 이번 大會에서 가장 物議을 이르킨 問題作인데 最終審査까지 올라갔다가 아깝게도 떠러 졌습니다”라는 이야기다. 아마도 나의 생각으로는 美國에 있는 李君의 親旧가 審査過程의 消息을 듣고 速斷해서 李君에게 入賞했다고 連絡한 것만 같다. 何如間아쉬웠으나 우리 學生들의 水準이 國際的인(大學)線까지 와 있다는데 기쁘기 限量없다. 會般大會의 學生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東洋系學生들의 進出이라 하겠다. 入賞者數을 살펴보면 아르헨틴 1 오지리 1 베르기에 부라질 1 캐나다 1 불란서 1 香港 2 日本 1 멕시코 3 칠코 1 泰國 1 英國 2 쏘련 3 等等이어서 이때까지 不振했던 東洋學生들의 進出이 눈에 띄는 것이고 特히 既成作家의 功勞賞에는 日本의 菊竹氏에 돌아왔다는 點과 共產系國의 學生들의 進出도 無視못 한다는 點이 되겠으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作品展에 大舉 進出해야만 하겠다고 생각되는바 既成들이나 學校當局 및 教授陣의 積極의 參與意이 要求되는 바이다.

### 円下健三氏の意見과 見解”

全般 Mexico 大會에 論文發表와 講演의 順序가 있어 世界的으로 高名한 建築家 5名이 講演을 했다 그 中에 日本에서 円下氏와 柴久庵氏가 끼어있다. 우리 가끔 今世紀에서는 前世紀와는 달라 建築界에 英雄的인 建築家 들은 있을수 없다고들 한다. 허나 아직도 그들의 人氣나 高名度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例로서 円下氏의 講演時의 狀況은 보면 알 수가 있다. 肅然히 듣고 있던 六千의 聽衆이 講演이 끝나 下壇하는 円下氏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大部分學生이거나 젊은層)손을 잡고, 웃도 만져보고

sign은 求하고 讚揚의 말을 던지고 拍手을 치고 하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그 때의 그 表情이나 日本代表團의 흐뭇해하는 表情은 率直히 말해서 부럽기만 했다. 누군가가 “円下の 人氣는 大端하군” “円下는 아직 살아 있군”라고 말을 했다. 다들 잘 알려지지 못한 講演者들과는 좋은 比較가 되었다고나 할까?

歸國后 新建築 1月号(79年)을 보았더니 Mexico 大會에서 円下の 演說文과 그의 U. I. A에 對한 所感들이 실려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U. I. A會議가 너무도 西歐的인 傾向이 많다고 指摘하고 있다. 即會議用語도 英, 佛, 西, 蘇 四國語이니 西歐側에 有利한 것이고 東洋系國家들은 言語의 障害가 커서 여러모로 不利하다는 것인데 그의 이런 所見의 背後에는 日本語도 會議用語로 했으면 하는 希望이 었 보인다. 그것도 그럴사한 것은 日本이 現在國際建築界에서 位置나 貢獻이나 實力 및 建築人口의 低辺 등을 생각할 때 正當한 見解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의 立場에서도 中國語나 日本語程度가 會議用語로 된다면 便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 弱少國家란 單 한가지 理由로서 모든 國際的인 行事나 會議에서 얼마나 言語의 障壁에 부딪쳤는가 말이다 적어도 한 言語를 Master 하려면 最少1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남의 나라에 없는 兵役三年과 言語의 不通으로 二重三重의 損害를 보고 劣勢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円下氏의 意見中에는 U. I. A에 對해서 日本이 너무도 消極的이라는 것을 自批判하고 있다. 過去 日本은 U. I. A에 大端한 熱誠을 보였고 前川氏는 四組의 副會長도 오래했고 理事國으로 여러번 지냈으나 日本人의 特有的 氣質로서 世界의 強大陣의 隊列에 오르니 高孤하게 그까짓 것이 무어나는 式으로 廻身하는 그런것을 円下氏가 非難하고 있다. 勿論理由야 許多하겠지만 日本이나 U. I. A에 對해서 消極的인 것을 을치 못한 것이고 積極參與해야만 日本自身을 爲해서도 世界建築界에도 利롭다고 하는 見解를 펴고 있다. 이 見解에는 나도 同感이다. 모름지기 現代社會는 國際社會에 參與치 않고서는 살아 갈 수가 없고 우리도 不知中에 이 國際社會에 발을 드러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이 言語의 障壁이요, 兵役의 時間的劣勢인 것이 된다. 言語에 관한 것은 政府나 海外公館이 協助만 해 준다면 어느 程度 Cover가 되겠지만 參與 없이는 情報나 水準이나 自己位置設定 등을 못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近者에 있어서도 馬來의 境偶는 政府가 國際會議에 對해 積極的인 支援과 訓練까지 시키고 있고 可及的 可能한 國際的인 行事도 若干의 無理를 위해서라도 舉行하는 形便이나 “무하마드 알리”를 불러다가 世界重量級試合을 했다던지 또는 全般 Mexico 大會에서나 Acapulco 總會에서 馬來의

kington Loo 氏의 言行은 國際會議에 아주 能熟했 다  
 기 보다 指導的이었고 四組의 副會長으로도 無投票當選이  
 될 程度였다. 그는 自國에서 國際會議에 처한 訓練을 받  
 았기에 Manner 나 方法에 아주 能했고 言語도 流暢했  
 다. 円下氏의 演說은 좀 길었지만 또박 또박 그리 能熟하  
 지 못한 英語로 繼續되었고 國際性을 띤 意見中에는 U.  
 I. A가 國際的인 建築家의 質의 基準은 作成해서 全會  
 員國政府에 強力한 發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勿  
 論 이 作業은 쉬운일이 아다나 政治的「이데오로키」을 超  
 越해서 建築에 關한 觀念 方法 等面에서 共同分母를 찾  
 아서 發見하는 作業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 했고 方法으로서  
 는 建築의 技術과 芸術의 어떤 水準을 定해서 各國建築大  
 學에 그 線까지의 建築教育을 시키도록 勸告해야 할 것이  
 며 各國間의 크고적은 建築活動「그룹」에 勇氣를 주는 作  
 業도 아울러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今回로서 四회에 걸쳐 中南美紀行文을 썼으나 率直히  
 말해서 旅行에서 있었던 일들과 보고 느낀 일들을 보탬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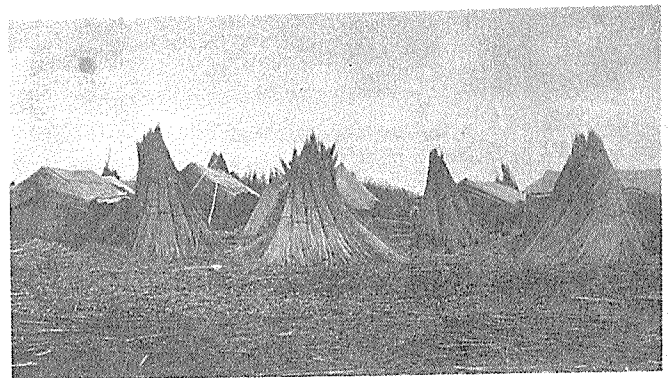


海高3,800m高地에 있다.(湖水의 全景)

이 그대로 써을 뿐이나 原來가 文章力이 없고 非學賤才이  
 라 읽기에 負擔이 가는 글을 써서 會員여러분께 未安하게  
 생각하느바이다 허나 若干의 概略이나마 종잡고 參考가  
 되었다면 多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特히 1回分에는 誤  
 植字가 많아서 2回부터는 直接校正을 보았더니 若干 종  
 와 겠고 次后, 1981년에 poland 에서 에서 大會에 萬  
 一參加하게 된다면 東歐共產諸國이나 Africa 을 돌아서  
 會員여러분께서 더 재미있고 좋은 글을 쓸 것을 約束 합  
 니다. 紀行文中 peru 의 두 아가씨들도 書信이 오가고있  
 고 平安이 잘 있고 今年九月頃에는 高요한 아침의 나라  
 韓國에 올것도 같으니 걱정도 되고 가슴설레이기도하다).

저듭謝過드리거니와 拙文을 써서 罪悚합니다.

會員여러분의 意見을 못고 싶습니다. 即 Mexico 大  
 會에서 있었던 円下氏의 演說全文을 듣고 싶다면  
 翻譯해서 記載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士  
 協 編輯室에 電話로라도 連絡해 주시면 합니다.



湖上의 部落